

# 학교 관리노인 전락한 '학교안전 파수꾼'

## '배움터 지킴이' 'CC-TV 상시관제' 유명무실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추진중인 '배움터 지킴이'와 'CC-TV 상시관제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생색내기엔 그쳐 예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780곳 중 223곳(광주 73곳·전남 150곳)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중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CCTV 시각 지대

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노인들을 지킴이로 위촉, 학교폭력 예방·근절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교내 시설물 관리 등 허드렛일을 도맡는 사실상 '학교관리인 할아버지' 수준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담배를 피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성인들이 훈계해도 '아저씨, 뭐냐'며 대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무더위에 학교 정문 앞 간이 천막이 유일한 공간일 정도로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위한 업무

■ 배움터 지킴이  
시설물 관리 등 허드렛일 폭력 말리면 "아저씨 뭐냐" 업무 환경 시설도 열악

환경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CCTV가 설치됐음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CCTV 상시관제사업'도 노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에만 치우치면서 부실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

■ CCTV 상시관  
오전 9시~오후 3시 활동 정작 학교폭력 많은 등하교시간엔 근무 안해

단체와 공동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학교 내 CC-TV 관제센터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 26명 ▲남구 36명 ▲북구 72명 ▲광산구 40명 등 모두 174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학생 수업 시간으로만 제한되면서 학교 폭

력 예방과는 거리가 멀고 배움터 지킴이 업무와도 유사해 전형적 타산행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마저도 별도 관제센터도 없이 비좁은 경비·숙직실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로 진행돼 노인들 사이에서도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 CCTV 관제센터에서 감시역할을 하는 이모(79)씨는 "근무시간 내내 아무것도 없는 화면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임모(68)씨는 "무더위에도, 장마철에도 별도 공간이 없어 학교 앞 임시 천막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못말리는 안전불감증

## 광주 외곽순환도로 현장 60대 추락사 화순 오수관거공사장 2명 매몰 사고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K건설 소속 인부 김모(61)씨가 15m 교량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김씨는 거푸집 형틀설치 작업 중 교량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교량에 설치된 철제 임시발판에서 있었다가 거푸집이 흔들리면서 발을 헛디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 측이 추락사고 대비,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김씨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일 오후 1시40분께 화순군 능주면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에서 강모(42)씨·박모(75)씨가 오수관거 공사를 하다가 흩더미에 깔려 매몰돼 박씨가 숨지고 강씨가 다쳤다. 이날 사고는 성인 키 3배 깊이의 땅을 파면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일어났다.

/최승렬기자 srchoi@

# 전남대병원 주차빌딩서 승용차 추락

## 부상당한 운전자 "급발진" 경찰은 "가속페달 밟았다"

전남대병원 주차빌딩서 승용차가 추락해 1명이 다쳤다.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주차빌딩 4층에서 아반테 승용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모(32)씨가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 병원 인턴으로, 3층에서 4층 주차장

으로 올라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마주 내려오던 차를 피하려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조씨가 마주 내려오던 차를 피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 진술 등을 근거로 조씨 승용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아 해보세요” 광주 북구 보건소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광주여자대학교는 지난 12일 우산동 꿈나무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대법, 고엽제 피해 손배소 파기환송

## 여드름 피해자 39명만 인정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파병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버거병 등 다른 파월 군인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2일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수

# 성행위 중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여성 '유죄'

## 광주고법 금고 2년 집유 3년

성행위 중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

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

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처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죄로 적용된 중과실 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4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309% 상태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5000만원 가전제품 사기

곡성경찰은 14일 컴퓨터·TV 등 가전제품을 직원가격으로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 만원을 가로챈 최모(여·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신형 TV를 직원가격인 50% 할인가격으로 사주겠다고 속여 지인 박모(48)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등 최근까지 47명으로부터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여자 행사하며 수심처려 취업사기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 행사를 하면서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홍모(32)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동구 호남동 한 PC게임방에서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은 김모(45)씨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가로챈 등 최근까지 59회에 걸쳐 742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홍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미모의 여성 사진과 함께 '나이 23살·키 163cm'라는 프로필을 게재한 뒤 주들이 연락을 해오면 타고난 여자 목소리로 업주들을 속였는데, 경찰은 절도 예방홍보 캠페인을 위해 우연히 PC방에 갔다가 홍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꿨던 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